

텍스트 생산 및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본 내러티브 번역: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중심으로

선영화
(한국외대)

1. 서론

2014년에 개봉한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은 영미권 소설을 한국 영화로 각색한 최초의 사례이다. 인터뷰에서 감독이 밝힌 소회는 서로 다른 두 문화권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이 영화의 내러티브를 풀어나가는 데 큰 고민거리였음을 보여준다.

원작을 영화사에서 보여주면서 한번 해볼 생각 있냐고 해서 처음 읽었을 때 저도 약간 당황하긴 했었거든요. 왜 나한테 이걸 줬을까. 이렇게 착하고 그냥...아주 한국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원작을 한국에서 하려고 하는 것도 약간 좀 잘 모르겠고...어떻게 풀까 하는 부분도 있어 좀 걱정이 됐었고. (김성호 2015, 강조는 필자)¹⁾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은 초반에 상영관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향을 겪었으나 언론과 평단, 관객의 호평에 힘입어 개봉 후 두 달 가까이 지난 시점에 상영관 확대를 통해 재개봉되었다. 이와 관련해 당시 SNS와 인터넷 공론장을 통해 상영관 확대 청원이 이어지고 유명인파 오피니언 리더, 일반 관객들이 자발적 대관 릴레이에 동참한 현상은 연일 화제가 된 바 있다(파이낸셜 뉴스 2015). 이처럼 영화는 원작의 느낌을 충실히 재현하면서도 본래 한국 영화인 것처럼 창의적으로 각색했다는 평가(조호 2015: 77-78)를 받으면서 영미권 소설의 한국 영화 각색에 의미 있는 선례를 남겼다.

그렇다면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은 원작 *How to Steal a Dog*와의 문화적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선택했고 이를 어떻게 적용했을까? 영미권 소설의 한국 영화 각색은 본 사례가 최초인 만큼, 제작 과정에서 이루어진 의사결정과 이에 따른 결과물의 양상을 고찰하는 것은 문화적 관점에서 ‘각색’이라는 번역학의 주제 영역을 탐색하는 데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원작 소설의 ‘내러티브’²⁾가 각색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번역’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번역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텍스트 생산’과 ‘사회문화적 배경’의 관점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즉,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총 3단계에 걸쳐 논의를 진행한다.

- 1단계(텍스트 차원): 영미권 소설이 한국 영화로 각색되는 과정에서 내러티브는 어떻게 번역될 수 있는가?
- 2단계(텍스트 생산 차원): 내러티브 번역이 이루어지는 맥락을 텍스트 생산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 3단계(사회문화적 배경 차원): 텍스트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1) 인터뷰 전문은 <https://vimeo.com/128478327>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본 연구에서 내러티브는 특정한 시·공간 안에서 인과 관계로 연결된 사건들의 연속을 의미한다.

각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논의된다. 첫째, 텍스트 차원의 논의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그레마스(Greimas)의 ‘내러티브 도식’을 분석 틀로 사용해 원작 소설과 영화의 내러티브를 비교하고 차이점을 도출한다. 둘째, 텍스트 생산의 관점을 조명하기 위해 영화 개를 훑치는 완벽한 방법의 제작기획서에 포함된 마케팅 컨셉, 포지셔닝 맵, 캐릭터 소개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1단계에서 도출된 내러티브 번역을 해석한다. 셋째, 2단계에서 확인한 텍스트 생산의 관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소를 도출하여 내러티브 번역의 배경을 설명한다.

2. 선행연구 분석

2.1 번역과 각색

각색은 기존에 존재하던 텍스트를 다른 매체나 장르로 전환하는 일종의 스토리텔링으로서, 근원이 된 텍스트의 존재를 잠재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Asimakoulas 2016: 557).³⁾ 번역학 내에서 각색이 ‘적극적인’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번역과 각색의 개념적 유사성에 주목하고, 이론적 토대가 부족한 각색 연구에 번역학 이론을 접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cf. 박건영 2020; Catrysse 2019; Krebs 2014; Milton 2018; Minier 2014).

번역과 각색은 출발텍스트를 구성하는 언어·문화적 요소의 ‘다시 쓰기’(rewriting) 형태를 취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유사성을 지닌다. 각색 과정에는 포괄적이고 새로운 맥락에서 텍스트를 재해석(reinterpretation)하고 원문의 시간적·문화적 배경을 재배치(relocation)하는 실행이 수반되는데, 이러한 특성은 번역 실행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Krebs 2014; Sanders 2006). 출발문화권에서의 ‘탈맥락화’와 도착문화권으로의 ‘재맥락화’로 대변되는 번역의 내재적

3) 본고에서 논하는 ‘각색’의 영어 번역어는 ‘adaptation’이다. 해당 용어는 번역학 내에서 ‘번안’, ‘각색’ 등으로 지칭되며, 한 가지 정의로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광범위한 개념 특성을 보인다(선영화 2019: 95).

특성이 각색과 접점을 지니기 때문이다.

한편 ‘매체 전환’이 수반되는 각색 개념의 특유성은 번역학에서 논의되어 온 고전적인 번역 정의와도 교집합을 이룬다. 예컨대 로만 야콥슨(Roman Jakobson)이 번역 유형의 하나로 제시한 ‘기호 간 번역(intersemiotic translation)’은 비언어기호 체계를 사용해 언어기호를 해석하는 번역 양상을 지칭한다는 면에서 각색 과정에 수반되는 기호 체계의 변이를 설명해 줄 수 있다.

학계를 중심으로 ‘포괄적 용어로서의 번역 개념(umbrella term)’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면서 번역학 내에서 다양한 주제를 아우를 수 있는 논의의 장(場)도 마련되었다.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과 기능주의 이론(functionalism)으로 대변되는 번역학의 조류 변화는, 그전까지 ‘언어적 구조물’로서 텍스트를 바라보던 연구 흐름을 ‘번역과 문화의 관련성’에 주목하는 연구로 바꾸어 놓았다(Enriquez-Aranda and Jiménez-Carra 2015: 413). 이렇듯 역사적으로 번역 개념이 큰 폭으로 변화함에 따라, 각색 결과물이 원문을 기반으로 한다면 이러한 각색은 번역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생겨났다(Palumbo 2009: 7). 원문의 의미와 의도가 결과물에 반영되거나 원문의 본질적인 핵심(essential core)이 결과물에서 재현, 혹은 재창조된다면 이러한 변이는 ‘번역’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cf. Bassnett 2002; Nida 2012).

국내외 선행 연구는 다양한 시각에서 각색을 조명해 왔으며, 연구의 방향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원문과 결과물의 형식 및 내러티브 등을 비교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텍스트 분석 논의가 각색 연구의 주를 이루고 있다. 예컨대 신종곤(2013)은 동일한 문화권에서의 각색 사례를 논하며, 소설 『은교』가 영화 은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변형적 각색’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주제 의식이 변주되는 양상을 고찰하였다. 손영은(2010)은 엽기적인 행동으로 발현되는 ‘그녀의 요구’에 대해 원작 소설 『엽기적인 그녀』와 영화 『엽기적인 그녀』가 어떠한 시각 차이를 지니고 있는지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화의 시각이 어떻게 등장인물의 변화에 기여하는지 논함으로써 각색 결과물로서의 영화가 지닌 가치를 밝히고자 했다.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타고르의 소설 *Ghare Baire*의 영화 각색을 분석한 맨달(Mandal 2012)은 원문에 내재된 역사·정치적 배경에 대한 영화 제작자의 해석이 영화의 내러티브 구조와 상징물, 등장인물의 특성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트랜스크리에이션(transcreation)의 관점을 적용해 설명하였다.

둘째, 기호와 모드(mode), 매체 환경 등의 다양한 변수가 각색을 기호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 주는 새로운 탐구 대상으로 부상했다. 예컨대 선영화(2016)는 정지 이미지로 구성되는 매체인 그림책이 동적 이미지인 애니메이션으로 각색된 사례가 동일모드 내 번역(intramodal translation)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그림책 *The Lost Thing*의 각색 결과물에 나타난 시각기호의 변이 양상을 시각 이미지 문법(grammar of visual design)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동일한 분석틀을 사용한 박진영(2020)의 연구는 소설에서 영화로의 각색 사례를 분석하면서 언어기호가 시각기호로 전환되는 양상과,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각기호의 기능적 측면에 초점을 맞췄다. 국외 연구로는 아시마코울라스(Asimakoulas 2016)가 각색 과정에서의 유머 번역 재현을 멀티모달리티의 관점에서 논하였다. 그는 아리스토파네스 희극이 만화책으로 각색된 사례를 분석하며 원문에 내재된 유머가 만화책이라는 “다양한 기호가 공존하는 내러티브 환경(multimodal narrative environment)”(Asimakoulas 2016: 554)에서 어떻게 창조적으로 재현될 수 있는지 탐구하였다.

셋째, 내러티브나 기호 등의 텍스트 내적 요소를 탐구하는 방식에서 더 나아가 각색을 텍스트 외적 측면에서 고찰한 연구도 존재한다. 최진실(2019)은 동일 매체 내 번역을 각색의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한국 영화 *엽기적인 그녀*의 할리우드 리메이크 영화 “*My Sassy Girl*”을 ‘수용’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는 국내 포털 사이트의 영화 온라인 리뷰와 전문가 리뷰, 블로그 리뷰와 학생 설문 등을 통해 영화의 흥행 실패 요인으로서 각색에 내재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도출해 냈다. 한편 소설 *P.S. I Love You*의 영화 각색을 연구한 페르디카키(Perdikaki 2017)는 르페브르(Lefevre)의 후원자(patronage) 개념을 각색 연구에 접목하여, 저자 인터뷰와 영화 트레일러, 영화 리뷰 등의 파라텍스트(paratext)를 분석함으로써 영화 시스템(film system)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탐색하였다.

앞서 기술한 선행연구는 각색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고 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연구의 공백과 한계점도 존재한다. 첫째, 각색이 원문에서 파생된 텍스트인 만큼 원문과 결과물을 비교하는 텍스트 분석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연구 방법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일부 연구에서는 각색 결과물의 변이를 해석할 단서를 제작 환경이나 제작자의 견해, 결텍스트, 관

객 리뷰 등의 외적 요소를 통해 바라보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회문화적 배경이라는 거시적 영향 요인을 통해 각색을 설명하려는 논의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둘째, 번역과 각색의 개념적 유사성에 대한 인식적 토대가 마련되면서 번역학 내에서 각색을 하나의 주제 분야로 다루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만, 막상 번역학의 테두리 안에서 각색을 다룬 논의는 규모와 다양성 측면에서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소설 *How to Steal a Dog*의 영화 각색 과정에 나타난 내러티브 번역 양상을 ‘텍스트 차원’에서 분석하고, 이를 ‘텍스트 생산의 관점’에서 해석하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설명함으로써, 1) 기존의 각색 논의에서 발견된 연구의 공백을 메우고, 2) 텍스트 생산과 사회문화적 요소라는 맥락 변수를 텍스트 분석에 접목하여 연구 방법의 다양화를 꾀하며, 3) 포괄적 번역 개념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 분야의 확장을 도모한다는 면에서 번역학에 새로운 가치를 더해줄 수 있다.

2.2 그레마스(Greimas)의 내러티브 도식(schéma narratif)

본 연구는 소설 *How to Steal a Dog*와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의 내러티브를 비교하는 텍스트 차원의 분석을 위해 그레마스(Greimas)가 제시한 ‘내러티브 도식(schéma narratif)’을 분석 틀로 사용하고자 한다.

내러티브 도식은 이야기의 ‘구조’에 착안한 모델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야기는 그 내용과 의미가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으나 그 골격은 동일하다(박인철 2012: 147). 이 골격이 바로 내러티브 도식이다. 도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그림 1 그레마스의 내러티브 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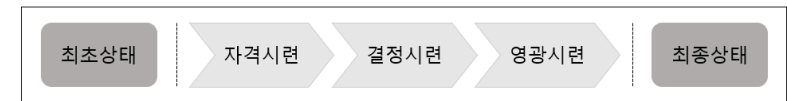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내러티브 도식은 “일체의 설화적 담화들을 조직

3. 연구 자료 및 분석 방법

3.1 연구 자료

본 연구에서는 영미권 소설에서 한국 영화로의 내러티브 번역 양상을 고찰하기 위해 소설 *How to Steal a Dog*와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연구 자료로 선정하였다. *How to Steal a Dog*는 미국 작가 바바라 오코너(Barbara O'Connor)의 장편 소설로 한국에서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서가 출간되었으며, 2014년 12월 동명의 한국영화로 각색되었다. 영미권 소설에서 한국 영화로의 각색 사례를 고찰하는 본 연구에서는 원작 소설 *How to Steal a Dog*를 출발텍스트(source Text, 이하 ST)로, 한국 영화인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도착텍스트(target Text, 이하 TT)로 지정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⁴⁾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 텍스트를 연구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첫째,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은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영미권 소설을 영화화한 사례이다. 이는 영미권과 한국 사회의 문화적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각색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전례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따라서 내러티브 번역을 둘러싼 텍스트 생산의 맥락과 사회문화적 배경에 주목하는 본 연구가 도착문화권에서의 수용을 위한 전략 수립 과정과 여기에 영향을 미친 복합적인 요인을 조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원문과 결과물 모두 작품성과 수용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원작 소설은 14개의 문학상과 협회상을 수상(현화영 2014)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으며 각색 영화는 언론과 평단, 관객들의 높은 평가를 받으며 재개봉된 바 있다. 이는 수용의 관점에서 내러티브 번역

하는 원리”(Greimas and Courtés, 1979; 박인철 2012: 147에서 재인용)로, 최종상태의 등장인물이 세 가지 종류의 시련을 겪으며 그 반대의 상태인 최종상태로 이행하는 과정을 표상한다.

이야기의 ‘최초상태’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결핍이나 훼손 상태가 제시되며, 이러한 결핍의 해소나 훼손의 복구가 등장인물의 행동이 지향하는 목표가 된다. 최초상태가 제시되고 나면 이야기는 (세 가지 시련 중 첫 번째인) 자격시련의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자격시련’은 뒤에 이어질 결정시련에서의 수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획득하는 단계이다. 이는 주체가 지향하는 가치 대상을 획득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자질을 갖추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조은진 외 2019: 203). 자격시련에서 획득하는 역량은 ‘의지’와 ‘지식’, ‘능력’으로 구분될 수 있다. 여기에서의 ‘의지’는 결핍의 해소가 동기로 작용해 등장인물의 행동을 이끄는 추동력을 뜻하며, ‘지식’은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의미하고, ‘능력’은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압할 수 있는 지배력의 형태로 나타난다(박인철 2012: 153). 두 번째 시련의 단계인 ‘결정시련’에서는 등장인물이 추구하는 대상 획득의 성패와 관련된 주 시련이 제시된다. 마지막 ‘영광시련’ 단계에서는 결정시련의 결과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제시되거나 행위 주체의 자기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세 가지 시련의 과정을 거친 ‘최종상태’에서는 이야기의 최초상태가 역전되어 결핍이 해소되거나 훼손이 복구된다.

본 연구에서 그레마스의 내러티브 도식은 원작 소설과 각색 결과물의 내러티브 구조 및 의미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도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도식은 내러티브가 구성되는 기본적인 원리와 체계를 표상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최초상태’와 ‘최종상태’의 극적 대립을 통해 이야기의 주제가 구현되는 본고의 분석 대상 텍스트에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또한 이전 단계에서의 경험이 다음 단계의 행동을 추동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등장인물을 둘러싼 사건과 이로 인한 심리·행동 변화가 주제 의식으로 이어지는 본 텍스트를 분석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4) 소설과 영화의 공통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사업 실패로 아빠가 집을 나가고 살던 집에서 쫓겨난 소녀는 엄마, 동생과 함께 차에서 생활한다. 사례금을 걸고 개를 찾는 전단지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소녀는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를 계획한다.
<개를 훔친다. → 개 주인이 사례금을 건 전단지를 붙인다. → 개를 찾은 것처럼 하고 주인에게 데려다 준다. → 돈을 받는다. → 집을 산다. → 행복하게 끝>
소녀는 어느 노부인의 개를 훔치는 데 성공하지만 뒤이어 일어나는 사건들로 인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내적 갈등을 겪던 소녀는 노부인에게 개를 돌려주고 잘못을 고백한다. 이후 엄마, 동생과 함께 다시 집에서 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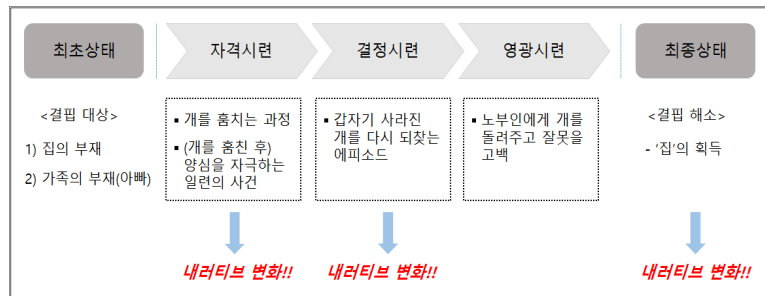
전략이 도착문화권에서 성공적으로 작용했음을 뜻한다.

3.2 분석 방법

필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1) ST와 TT를 구성하는 주요 에피소드를 확인하여 이를 그레마스 내러티브 도식의 각 단계에 맞게 분류한 후, ST와 TT의 도식을 비교해 눈에 띄는 차이가 드러나는 내러티브 단계를 도출한다. 그리고 2) 텍스트 생산의 관점을 보여주는 제작기획서 자료를 통해 ST와 TT의 내러티브 차이를 해석할 단서를 탐색한다. 끝으로 3) 텍스트 생산의 맥락에 영향을 미친 사회문화적 배경을 도출하여 각색을 둘러싼 거시적 영향 요인을 설명한다.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ST와 TT의 주요 에피소드를 내러티브 도식에 적용하여 그림 2와 같이 정리하였다.

그림 2 주요 에피소드의 내러티브 도식 적용 결과



ST와 TT는 모두 '집의 부재'와 '가족(아빠)의 부재'라는 결핍을 시작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결정시련에서의 수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의지, 지식, 능력)을 획득하는 단계인 자격시련은 소녀가 개를 훔치는 과정과 그 이후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소녀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에피소드로 구성된다. 등장인물이 추구하는 대상 획득의 성패와 관련된 주요 시련인 결정시련에서는 갑자기 개가 사라지고 이를 다시 되찾는 극적인 상황이 제시된다. 결과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혹은 행위 주체의 자기 평가가 제시되는

결정시련에서는 소녀가 노부인에게 개를 돌려주고 잘못을 뉘우치는 에피소드가 등장하며 시련의 단계가 마무리된다. 마지막 최종상태에서는 최초에 제시된 결핍 요소인 '집'을 획득하는 소녀의 모습이 그려진다.

이와 같이 소설과 영화는 큰 틀에서 동일한 내러티브 구조를 보이지만 각 단계를 구성하는 세부 에피소드 중 눈에 띄는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자격시련, 결정시련, 그리고 최종상태를 구성하는 에피소드에서 유의미한 내러티브 변화가 관찰되었다. 따라서 이어지는 분석 결과에서는 해당 단계를 구성하는 세부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그 변화 양상을 확인하고,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을 텍스트 생산 및 사회문화적 배경을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4. 분석 결과

4.1 텍스트 차원

본 절에서는 ST와 TT를 구성하는 에피소드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는 자격시련과 결정시련, 최종상태를 중심으로 내러티브의 번역 양상을 탐구하고자 한다.

4.1.1 자격시련에서의 내러티브 변화

그레마스의 내러티브 도식에서 자격시련은 뒤에 이어질 결정시련에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획득해 나가는 단계이다. ST와 TT의 자격시련 단계에서는 주인공 소녀가 개를 훔치기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그리고 소녀의 양심을 자극하는 사건들이 공통적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각색 과정에서 흥미로운 변화가 생겼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로 소녀가 ST에서는 얻지 못했던 '원조자'라는 형태의 능력을 TT에서는 획득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소설과 영화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인 노부인과 노숙자에게 원조적 성격이 부여되며 나타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작 소설의 자격시련 단계에서는 개를 훔친 뒤

소녀가 느끼는 내적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나 경험보다는 심리적 묘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떠한 지식이나 능력 등의 도구를 획득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궁극적 목표인 ‘집’을 사기 위해서는 ‘흠친 개’를 반드시 지켜내야 하지만 이 단계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면서 목표를 달성할 역량을 획득하는 데는 실패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영화의 자결시련 단계에서 소녀는 이후 다가올 위기에서 결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원조자’라는 형태의 능력을 얻게 된다. 이것은 노부인과 노숙자에게 각각 아들과 딸의 ‘가족 결핍’ 사연이 추가되는 형태로 구현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인공 소녀의 최초상태는 ‘집’, 그리고 ‘가족(아빠)’의 부재로 대변되기 때문에 이러한 가족 결핍 사연은 등장인물 간 심리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촉매제로 작용하는 것이다.

〈표 1〉 ‘아들의 부재’ 사연 추가를 통한 소녀와 노부인 간 공감대 형성(강조는 필자)

등장인물	영화(TT) 대사 / *원작 소설(ST)에는 해당 사연 없음
노부인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나이 서른에 혼자 그림 그리다 사고로 죽었어. 그래서 작품이 몇 개 되지가 않아. 난 이 사람의 그림을 모으고 있었어. 그런데 이제 그만 둘 때가 된 것 같아.
소녀	혹시... 이 사람이?
노부인	내 아들이란다. 애는 그림 그리는 걸 아주 좋아했어. 화가가 되고 싶어했어. 난 절대 안 된다고 그랬고. 그랬더니 어느 날 집을 나갔어. 집 나가면서 나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알아? 이 세상에서 날 제일 미워한다고 그랬어. 그리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나한테 연락을 하지 않았단다. 죽었다고 연락이 와서 찾아갔더니 개가 한 마리 지키고 있더라고.
소녀	그 개가... 윌리인가요?

상기에 제시된 노부인과 소녀의 대화는 두 등장인물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적 요소들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집을 나간 가족’, ‘원망의 심리’, ‘윌리’(개)가 그것이다. 결국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귀결되는 이러한 연결고리는 심리적 동질감을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해, 노부인이 내러티브의 ‘최종상태’에서 소녀의 원조자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표 2〉 ‘딸의 부재’ 사연 추가를 통한 소녀와 노숙자 간 공감대 형성(강조는 필자)

등장인물	영화(TT) 대사 / *원작 소설(ST)에는 해당 사연 없음
노숙자	그거 내 딸이 엄청 좋아했던 거야.
소녀	근데 왜 지금까지 혼자 이려고 살아왔어요? 딸이 보고 싶지도 않아요?
노숙자	엄청 보고 싶지. 너는 상상도 못 할걸.
소녀	아니 보고 싶으면 보러 가면 되잖아요.
노숙자	창피해서 그런 거지. 창피해서...
소녀	뭐가 창피해요?
노숙자	내가 잘해주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보고 싶을 때는 멀리, 멀리서 이렇게 쳐다보고 돌아오고 그런다고.
소녀	우리 아빠도 그럴까요?
노숙자	그럼. 세상 아빠들은 다 그래.

상기에서 알 수 있듯이 영화 속 노숙자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딸 앞에 나서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을 지니고 있다. 사업 실패 후 아빠가 집을 나간 소녀의 사연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그동안 아빠를 원망하던 소녀가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노숙자와의 사이에서 ‘우정’이라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다. 또한 이어질 결정시련 단계에서 노숙자가 소녀의 가장 큰 원조자로 활약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변화는 ST와 TT의 내러티브 구조에 결정적 차이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있다.

4.1.2 결정시련에서의 내러티브 변화

내러티브 도식 중 결정시련 단계에서는 등장인물이 추구하는 대상 획득의 성패와 관련된 주 시련이 제시된다. ST와 TT에서는 갑자기 사라져 버린 개를 다시 되찾는 에피소드가 결정시련을 구성한다. 소녀의 궁극적 목표인 집을 얻기 위해서는 개를 반드시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개의 실종은 전체 내러티브 구조에서 가장 큰 위기로 작용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결정시련에서 ST와 TT 사이에 눈에 띄게 나타나는 차이는 이 단계에서 등장인물 간의 대결 구도가 재구성된다는 점이다. ST에서는 ‘소녀와 노숙자의 대결’을 통해 결국 소녀가 양심을 회복하게 되는 결과가 강조된 반면, TT에서는 ‘원조자(노숙자)와 적대자(노부인의 조카)의 결투’가 추격전으로 그려지고 그 승리의 과정이 전면에 부각된다.

먼저 원작을 살펴보면, 노숙자는 소녀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인물로 그려진다. 즉, 소녀가 개를 훔친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꾸짖지 않고 (소녀로서는) 알 수 없는 말과 행동으로 지속적으로 양심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ST의 결정시련 단계에서, 폐가에 숨겨놓은 개가 갑자기 사라지자 소녀는 그동안 내심 거슬렸던 노숙자를 의심한다. 그러나 개가 그저 노숙자를 따라 갔다 돌아온 것이라는 것이 밝혀지며 이것이 오해였음이 드러난다.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 볼 때 그저 단순한 에피소드로 보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전 자격시련에서 양심의 가책을 겪고 괴로워했던 소녀가 바로 이 단계에서의 경험을 통해 심리적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점이다. 즉, 소녀는 다음과 같은 노숙자의 신조를 되새기며 자신의 내적 갈등을 해결할 실마리를 발견한다.

I smiled, thinking about Mookie and his motto. About the trail you leave behind being more important than the path ahead. (O'Connor 2009: 166)

이렇듯 노숙자와 소녀의 갈등이 개인의 양심 회복으로 이어지는 원작에서와 달리, 영화에서는 해당 에피소드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된다. 즉, 원작과 동일하게 개가 사라지는 위기를 맞는 소녀의 모습이 그려지지만 노부인의 유산을 노리고 개를 훔쳐간 ‘노부인 조카’와의 추격전으로 내러티브가 재구성된 것이다.

그림 3 원조자(노숙자)와 적대자의 대결로 재구성된 결정시련



추격전은 그림 3과 같이 오토바이를 탄 노숙자가 소녀와 친구들을 이끌고 적대자(노부인 조카)를 쫓는 장면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모습은 유머 효과를 유

발하지만 한편으로는 케이퍼 무비(caper movie)⁵⁾를 표방한 구성이 긴장감을 조성하며 역동적으로 극의 전개를 이끌어나간다. 노숙자와 적대자의 대결이 부각된 영화의 결정시련은 소녀가 결국 개를 되찾는 성공적인 결과로 마무리된다. 특히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격시련에서 원조적 인물로 변화한 노숙자가 결정시련 단계에서 소녀를 승리로 이끌어 주는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등장인물의 관계성이 한층 부각되고 내러티브 단계 간 결속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4.1.3 최종상태에서의 내러티브 변화

결정시련의 결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영광시련 단계에서 소녀는 노부인에게 개를 돌려주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된다. 그리고 이어지는 최종상태에서 작품의 주제 의식과 직결되는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된다. 소설과 영화 모두에서 소녀가 겪고 있던 ‘집의 부재’는 해소되지만 그 양상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ST의 경우, 소녀는 앞서 겪은 시련들과는 아무 상관없이 ‘집’을 얻게 된다. 소녀의 엄마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 집을 구한 것이다. 그러나 TT에서는 집의 결핍이 해소되는 계기가 앞선 시련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아래의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자격시련 단계에서 원조자로 변모한 노부인이 소녀에게 집을 선물해 주는 것으로 내러티브 구조가 변화된 것이다. 특히 ‘전세 500’이라는 비현실적인 시세를 통해, (500만원이면 집을 살 수 있다는) 소녀의 순수한 믿음을 지켜주고자 한 노부인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5) 케이퍼 무비란 범죄자들이 모여 범죄를 모의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복잡한 플롯으로 표현한 범죄·갱스터 영화의 하위 장르를 뜻한다(테일리한국 2017).

〈표 3〉 최종상태에 나타난 '집의 결핍 해소' 내러티브 재구성

ST	TT
<p>When we pulled up in front of our new house, me and Toby grinned at each other. It was a tiny white house with a rusty swing set in the red-dirt yard and a refrigerator with no door sitting right up on the front porch. But it looked like a castle to me. [...] Louise was a friend of Patsy's and needed somebody to share the house with her and help take care of Drew and pay some of the rent (O'Connor 2009: 168).</p>	<p>“한샘부동산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더라고. 어떤 할머니가 자기 아들이 살던 집인데 전세 500에 세를 냈다는 거야. 아니 전세 500에 이런 집 구하기 힘들다던데 진짜 신기하지 않냐? 어떻게 딱 500이야?”</p>

또한 최종상태에서 흥미로운 변화가 한 가지 더 관찰된다. 최종상태에서 ‘집’과 함께 또 하나의 결핍으로 제시된 ‘아빠의 부재’가 ST와 달리 TT에서는 부분적으로 해소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소녀가 (원작에는 없던) 편지를 읽고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에피소드가 추가되면서 이루어진다. 영화 결말에 제시되는 그림 4의 전단지 “아빠를 찾습니다!! 사례금 500원”, “미안해하지 마세요. 우린 괜찮아요.”와 같은 문구로 구성되어 가족 간의 화해와 용서, 사랑의 메시지를 윤택한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림 4 ‘아빠의 결핍’이 부분적으로 해소된 TT의 최종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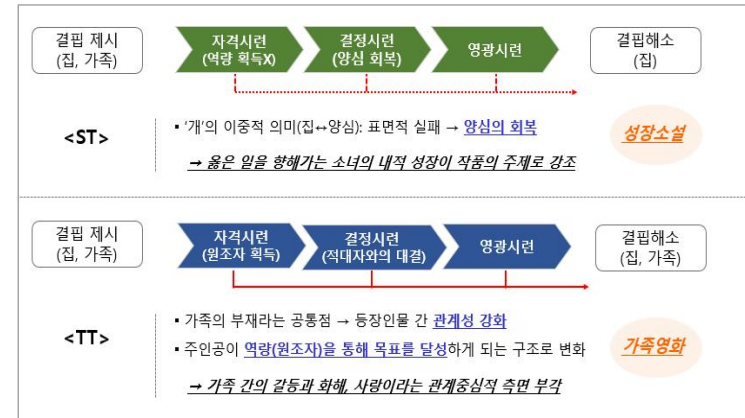


4.1.4 텍스트 분석 결과의 시사점

필자는 상기에서 살펴본 자격시련과 결정시련, 최종상태에서의 내러티브 변

화 양상을 통해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의 전체적인 각색 방향을 도출하였고 이를 아래와 같이 도식화하였다.

그림 5 ST와 TT의 내러티브 구조 차이 및 장르적 성격의 변화



도식에서 알 수 있듯이 ST에서는 역동적 사건의 전개나 등장인물 간의 관계성이 강조되지 않는다. 오히려 소녀 개인이 겪는 내적 갈등과 심리적 변화의 섬세한 묘사를 중심으로 내러티브가 전개된다. 모든 시련의 단계에서 양심의 문제가 부각되고 이를 해소할 실마리를 발견해나가는 과정이 내러티브의 주축을 이루는 것이다. 개를 돌려줌으로써 ‘집’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소녀의 힘으로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표면적 실패는 역설적으로 양심의 회복을 암시한다는 측면에서 ST가 구현하고자 하는 주제를 유추해볼 수 있다. 즉, ST의 내러티브는 ‘좋은 일을 향해 나아가는 소녀의 내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성장 소설’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 TT에서는 소녀가 자신이 획득한 능력(원조자)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내러티브가 변화되었다. 가족과 관련된 심리적 공감대 형성, 그리고 이를 통해 획득한 원조자 형태의 능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집을 얻게 되는 과정이 ‘성취’의 서사 구조를 보이는 것이다. 특히 내러티브 구조의 각 단계에서 가족을 중심으로 한 ‘관계’가 중요한 소재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가족이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한 사람 간의 갈등과 화해, 사랑과 같은 관계 중심적 요소가 내러티브를 이끌어 가는 동력으로 작용하면서 ‘가족 영화’의 면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ST와 TT의 차이는 결텍스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책 표지와 영화 포스터는 ‘개인’과 ‘관계’로 대변되는 소설과 영화의 차이점을 흥미롭게 묘사하고 있다.

그림 6 원작 소설과 영화의 결텍스트 비교



좌측에 제시된 원작 소설에서는 사건의 중심이 되는 ‘개’를 가장 비중 있게 묘사했고, 원작 소설 책표지의 또 다른 버전에서는 개와 소녀를 대등한 비중으로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둘의 관계가 이야기의 중심이 된다는 점을 암시해 준다. 반면 영화 포스터의 경우, 소녀와 개를 포함한 모든 등장인물이 하나의 프레임 안에 제시되어 있다. 특히 소설 앞표지에서와 달리 개와 소녀는 각각 중앙 하단부, 좌측에 묘사되어 있고, 소녀의 원조자라 볼 수 있는 노부인과 노숙자가 중앙과 우측 전면에 비중 있게 배치되어 높은 시각적 노출도를 보이고 있다. 개를 훔치고, 돌려주고, 집을 얻게 되는 모든 과정이 ‘가족’을 매개로 위인 이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하단 중앙부에 제시된 포스터 문구 또한 이러한 시각적 연출과 맥을 같이 한다. “목표는 한 ‘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문구는 ‘그들’이라는 인칭 대명사를 통해 등장인물 간의 관계가 사건 해결의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는 점을 암시한다.

4.2 텍스트 생산 차원

그렇다면 *How to Steal a Dog*를 ‘개인 중심 성장 소설’에서 ‘관계 중심 가족 영화’로 변모시킨 동인(動因)은 무엇일까? 본 절에서는 이러한 내러티브 번역 양상에 내재된 배경을 텍스트 생산 차원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의 제작기획서를 확보하여 전반적인 각색의 방향성과 구성, 목표 등을 확인하였다. 먼저 제작기획서의 <마케팅 컨셉 및 포지셔닝> 항목을 통해 해당 영화가 잠재 관객의 인식과 마음속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자 했는지를 살펴보았다. 제작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포지셔닝 맵(positioning map)을 제시하였다.

그림 7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의 포지셔닝(제작기획서 자료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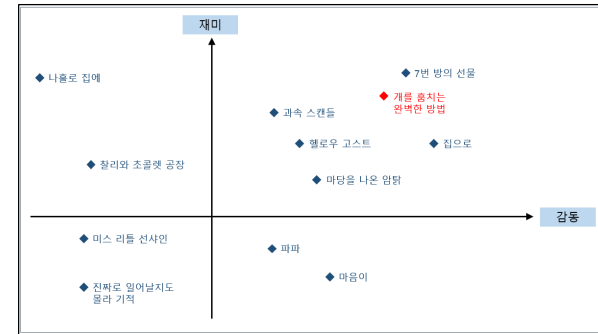


그림 7에서 알 수 있듯이 포지셔닝 맵은 ‘재미’와 ‘감동’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은 네 개의 사분면 중 1사분면의 우측 상단부에 자리한다. 원작 소설에서 영화로의 내러티브 번역이 바로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특히 1사분면에 위치한 주변 작품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의 구체적인 포지셔닝 방향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작품들은 모두 한국 영화라는 점 이외에도 두 가지 공통점을 지닌다. 첫째, 상업성이나 화제성 면에서 유의미한 성공을 거두었다. 영화진흥위원회(KOFIC)가 제공하는

국내 영화 역대 박스오피스 순위(2021.8.31.기준)를 살펴보면, 7번방의 선물은 역대 7위, 과속 스캔들⁶⁾은 역대 24위를 차지하며 상업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마당을 나온 암탉은 한국 애니메이션 사상 최초로 220만 관객을 돌파해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우며 대한민국 콘텐츠 어워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양미영 2012).⁶⁾ 영화 집으로는 1억 5천만 원이라는 적은 제작비로 420만 명의 관객 동원에 성공해 화제가 되었으며 대중상 최우수 작품상과 백상예술대상 영화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배경민 2014).⁷⁾

둘째, 가족 간의 갈등과 화해, 사랑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가족애의 정서적 측면에 부각된다. 예컨대 「7번방의 선물은 아빠와 어린 딸, 「집으로는 할머니와 손자 사이의 가족애를 다루고 있으며, 과속 스캔들과 헬로우 고스트는 가족 없이 홀로 살아온 남성이 새로운 인연을 통해 가족의 존재와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애니메이션 마당을 나온 암탉도 양계장을 뛰쳐나온 암탉의 자유와 도전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기른 정’을 소재로 한 모성애를 함께 담아내고 있다.

결국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 포지셔닝 맵에서 이러한 작품의 주변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자본이 많이 투자되는 상업 영화의 특성상 흥행 수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목표 문화권 수용자(한국 관객)의 특성을 반영하여 그들의 가치관, 정서에 부합하고 영화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각색할 필요성이 있다. 정리하자면, (1사분면의 영화처럼) 가족 관계를 내러티브의 중심에 두고, 이들 간의 갈등과 화해, 사랑을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한국 가족 영화의 ‘장르적 특성’이 원작 *How to Steal a Dog*를 각색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소설에서 다룬 가족 해체와 가난, 주거 불안이라는 소재를 영화에서는 ‘가족애’를 중심으로 한 인물 간 관계 형성을 통해 해결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제작기획서에 담긴 아래의 <캐릭터 소개>는 이러한 등장인물 간의 관계 특성을 집약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표 4〉 제작기획서의 <캐릭터 소개>(강조는 필자)

캐릭터	소개
노부인	찬바람 뽀뽀 부는 냉정한 캐릭터지만 ‘윌리’를 잃고난 후, 어린 ‘지소’를 통해 죽은 아들을 그리워하며 과거에 간혀 살았던 상처를 치유해 간다.
지소 (소녀)	노부인의 개 ‘윌리’를 훔치는 사건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된다.
대포 (노숙자)	개를 훔치는 과정에서 계속 마주치고 대화를 나누면서 지소가 자신이 처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알게 모르게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채랑	지소의 가장 절친한 친구로서 지소에게 벌어진 일들을 유일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변함없이 지소와 친구를 하기를 원한다. 지소의 작전에 최고 조력자로서 모든 고민과 행동을 함께 한다.
지석	지소가 따라다니며 챙겨줘야 하는 남동생. [...] 지소의 개를 훔치는 작전에서 예상치 못하게 뛰어난 기억력으로 도움을 준다.

상기의 밑줄 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노부인과 노숙자를 포함한 주변 인물은 소녀가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되는 과정에 도움을 주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 또한 노부인의 경우 결말에서 소녀에게 집을 선물하기는 하지만, 일방적으로 베푸는 존재가 아니라 소녀에게 위로를 얻고 상처를 치유해 가는 인물로 그려져 있다. 이렇듯 관계성을 부각하는 방식의 등장인물 재구성 은 소녀 개인의 성장이 부각된 원작 소설과 차별화된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사에서는 궁극적으로 다음과 같은 ‘마케팅 컨셉’과 ‘장르’, ‘Tone & Manner’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4.1에서 논한 텍스트 분석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표 5〉 제작기획서에 제시된 마케팅 컨셉 및 장르, Tone & Manner

구분	내용
마케팅 컨셉	2014년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감동 드라마!
장르	휴먼 감동 가족 드라마
Tone & Manner	감동적인, 흥미진진한, 교훈적인, 유머러스한, 가슴 뜨거운

6) <http://www.reader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453>

7)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74434>

4.3 사회문화적 배경 차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은 ‘재미’와 ‘감동’을 내러티브 번역의 두 축으로 하여 상업성과 화제성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휴먼 감동 가족 드라마”를 표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은 4.1에서 분석한 내러티브 구조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휴먼 감동 가족 드라마’라는 장르적 성격이 한국 관객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리라 기대하게 만든 요인은 무엇일까?

그 실마리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의 내러티브 번역 양상을 대변하는 두 가지 특징인 ‘가족’과 ‘관계’라는 키워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영미권 원작 소설은 소녀 개인의 내적 성찰과 성장을 그려내는 데 초점을 맞춘 반면, 한국에서 각색된 영화는 ‘가족의 부재’라는 공통점을 매개로 등장인물 간 ‘관계성’이 강화되고, 이를 토대로 소녀가 집과 가족이라는 결핍을 해소하며 목표를 달성하는 내용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가족주의’는 성장 소설에서 가족 영화로 변모한 번역 양상의 일면을 설명해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사회 구성의 기본 단위로서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가족주의는 구성원 간의 애정과 결속력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가족 내 인간관계를 다른 사회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의식 및 태도를 뜻한다(김혜영 2013: 13; 이명호 2013: 360). 가족주의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른 어떤 사회에서보다도 뚜렷하다고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가족주의 개념은 한국 사회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활발히 차용되고 있다(백광렬, 이상직, 사사노 미사에 2018: 115-116).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의 만 19-79세 성인을 일대일 개별 면접하여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⁸⁾는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가족을 우선시하는 한국인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8)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는 한국인의 의식과 가치관을 파악해 정부 정책을 추진하고 인문사회과학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996년도에 처음 시작되었으며 2019년에 7회차 조사가 시행되었다. 조사 주기는 약 3-5년으로, 전국의 만 19-79세 성인 남녀(최근 3회 조사 기준 2013년 2,537명 / 2016년 5,000명 / 2019년 5,100명)를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 면접을 실시해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 개봉된 2014년 12월 31일과 가장 인접해 발표된 2013년 보고서를 살펴보면, 한국인의 행복 수준은 10점 만점에 6.9점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행복 수준이 상승하며, ‘가족’이 행복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드러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14).⁹⁾ 또한 한국 사회에서 가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고민 상담 대상은 주로 가족과 친척(44.0%)이었으며 가장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도 ‘가정’(68.4%)(문화체육관광부 2014)으로, 여전히 가족주의가 한국인의 인식과 가치관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에서 ‘가족’은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서 주요 소재로 차용되고 있으며 사회 변화에 따른 지속적 재해석을 통해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김기덕, 이동배, 장제운 2012: 23). 드라마나 영화는 허구의 산물이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가치관을 그려낸다는 점에서 미디어에 재현된 가족주의는 한국인의 일면을 담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가족주의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사실을 본 각색 사례뿐만 아니라 ‘이(異) 언어 간 번역’이라는 본원적 의미의 번역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출발텍스트인 소설 *How to Steal a Dog*와 이를 한국어로 번역한 도서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의 뒤표지 문구를 비교해 보기로 하자.

<표 6> 이(異) 언어 간 번역 사례에 부각된 가족주의 가치관

구분	뒤표지 문구
원작 소설 (영어)	Georgina Hayes may be homeless, but she's not hopeless.
	[Half of me was thinking.] Georgina, don't do this. Stealing a dog is just plain wrong.
	[The other half of me was thinking.] Georgina, you're in a bad fix and you got to do whatever it takes to get yourself out of it.

9) 2013년 보고서는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4865>에서 확인 가능하다(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은 보고서 p.19-20에서 확인 가능).

번역서 (한국어)	“어느 날 아빠가 사라졌다. 우리 집도 사라졌다. 엄마와 나, 내 동생에게 남은 것은 자동차 한 대와 1g의 용기뿐..” 이제 세상을 겨냥한 조지나 식 ‘집 구하기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	--

상기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원작 소설의 뒤표지 문구는 주인공 소녀인 조지나(Georgina)가 개를 훔치는 과정에서 겪는 내적 갈등을 묘사하고 있는 반면, 한국어 독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번역서 뒤표지에서는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보금자리의 상실, 그리고 남겨진 가족에 대해 조지나가 느끼는 책임감과 결의가 부각되어 있다. 원작 소설과 번역서는 (각색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한 본문을 대상으로 표지 문구가 구성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다른 해석이 도출되었다는 점은 한국 사회에서 가족주의 가치관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해석을 뒷받침해 준다.

이렇듯 한국의 가족주의 가치관이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에서 등장인물 간의 공감대와 결속을 이끌어 낸 추동력으로 작용했다면, ‘한국적 집단주의’라 일컬어지는 ‘우리성(we-ness)’은 노부인과 노숙자 등의 주변 인물이 적극적인 원조자로 변모해 소녀의 목표 달성 과정에 기여하는 내러티브 변화를 효과적으로 설명해 준다. 우리성은 한국인의 집단주의 정서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개념으로서, 상호의존성과 정(情)을 기반으로 하는 ‘관계적 집단주의’의 성격을 띠는 면에서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공통성을 중시하는 서양의 ‘개인화된 집단주의(individuated collectivism)’와 차별화된다(양정은 2019; 최상진, 최인재 2002). 한국인은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고향이나 가족 관계, 나이, 직업 등의 사적인 정보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공통점을 확인한다. 공통분모를 찾는 과정이 ‘우리’라는 관계를 시작하는 초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객관적 단서’를 통해 형성된 관계는 정(情)이라는 한국적 정서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양정은 2019; 최상진 2000).

이러한 우리성을 영화의 내러티브에 적용해 보면, 아버지의 가출(소녀), 아들의 죽음(노부인), 딸 앞에 나설 수 없는 상황(노숙자)으로 대변되는 ‘가족의 결핍’은 강력한 공통분모를 이루며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결핍을 해소해 나가는 추동력이 된다. 앞서 <표 1>과 <표 2>에서 제시한 소녀와 노부인의 대화,

그리고 소녀와 노숙자의 대화는 서로의 공통점이 드러나며 심리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기와 과정을 예증해 준다.

특히 원작 소설과 차별화된 영화의 결말은 우리성으로 대변되는 한국적 관계주의 문화의 믿음을 단적으로 드러내 준다. 소녀가 원조자와 합심해 적대자(노부인 조카)와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노부인의 도움으로 단돈 500만원에 집을 얻게 되며, 아버지를 찾는 ‘유쾌한’ 전단지지를 붙이면서 심리적 상처를 털어내는 결말은 현실적이라기보다는 동화적 환상에 가까운 듯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관계주의 문화에서는 ‘나’라는 개인보다 ‘우리’라는 집단을 형성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는 점(박재홍 2007: 45)에서, 영화의 결말은 한국 사회에서의 우리성에 대한 믿음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내러티브 번역의 사회문화적 요인으로서 가족주의와 우리성이 갖는 설명력은,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과 동일 매체 범주에 속하는 ‘영화’ 중 상업적 성공을 거둔 작품의 특징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국내 영화 역대 박스오피스 순위(2021.8.31.기준)를 1위부터 15위까지 살펴보면, 「신과 함께: 죄와 벌 (3위), 국제 시장」(4위), 7번방의 선물 (7위), 부산행 (12위), 「해운대 (14위), 괴물 (15위) 등 총 6편의 영화가 가족 간의 관계나 갈등, 사랑을 직간접적인 주제로 삼거나 내러티브를 이끌어 가는 배경으로 하고 있다. 영화가 담고 있는 가족의 메시지는 작품의 주제를 단적으로 표상하는 결텍스트, 즉 포스터를 통해서도 강하게 드러난다.

그림 8 한국 영화 포스터에 재현된 가족주의



그림 8과 같이 가족 구성원이 하나의 프레임 안에 묘사된 시각기호의 특성

과, “가족의 사투가 시작된다.”, “그 때 그 시절, 군세계 살아온 우리들의 이야기”, “아빠가 지켜줄게.”와 같은 언어기호의 조합은 영화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에 ‘가족’이 있음을 방증한다.

때로 우리성은 가족주의와 혼재된 형태로 묘사되기도 한다. 가족 관계가 아닌 구성원들이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유사한 형태의) 심리적 유대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극한 직업 (2위)», 「도둑들 (6위)», 「7번방의 선물 (7위) 등은 아래의 포스터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이 동일한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강력한 결속력과 일체감을 갖게 되는 과정을 내러티브의 중심 소재로 삼고 있다. 4.1에서 살펴본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의 영화 포스터(그림 6)도 이와 매우 유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성은 한국 관객에게 소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유인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9 한국 영화 포스터에 재현된 우리성



이렇듯 가족주의와 우리성은 한국 사회에서 접근성과 파급력이 높은 여러 콘텐츠를 통해 다양한 모습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이렇게 재현된 ‘우리의 모습’은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체성 및 행동 양식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한국적 집단주의의 모습과 가치관을 다시금 확인하도록 하여 이를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영미권 소설 *How to Steal a Dog*가 한국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으로 각색되는 과정에서 내러티브가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텍스트 차원’에서 분석하고, 이러한 내러티브 번역이 발생한 맥락과 원인을 각각 ‘텍스트 생산 차원’과 ‘사회문화적 배경 차원’에서 고찰하였다.

텍스트 및 텍스트 생산 차원, 사회문화적 배경 차원에 걸친 총 3단계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레마스의 내러티브 도식을 통해 내러티브의 변이 양상을 분석한 결과, 원작 소설과 달리 영화에서는 1) 주인공 소녀가 자격시련 단계에서 ‘원조자’라는 능력을 획득하고, 2) 결정시련 단계에서 원조자와 협력해 위기를 타개하고 승리하며, 3) 이러한 결과로 최종상태에서 모든 결핍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내러티브가 재구성되었다. 이러한 내러티브의 차이로 인해 개인의 ‘양심 회복’에 초점을 맞춘 원작의 서사가 원조자와 함께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성취’의 서사로 변모했으며, 장르적 성격 또한 ‘성장 소설’에서 ‘가족 영화’로 변화했다.

둘째, 영화의 제작기획서에 기술된 마케팅 컨셉과 포지셔닝 맵, 캐릭터 소개 등의 자료를 통해, 앞서 텍스트 분석 단계에서 확인한 내러티브 번역의 방향성이 어떠한 텍스트 생산 맥락에서 도출된 것인지 확인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포지셔닝 맵 상에서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 목표로 한 위치는 상업성이나 화제성 면에서 성공을 거둔 한국 영화의 주변부였으며, 이 영화들은 모두 가족애의 메시지를 유쾌하면서도 감동적으로 풀어낸 ‘가족 영화’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러한 포지셔닝을 바탕으로 영화는 높은 수준의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담아낼 수 있는 ‘휴먼 감동 가족 드라마’로 장르를 설정하고 내러티브 및 등장인물을 재구성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이러한 장르적 성격이 한국 사회에서 높은 상업성이나 화제성을 이끌어 내리려 기대하게 만든 사회문화적 요인을 ‘가족주의’와 ‘우리성’으로 설명하였다. 한국 사회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활발히 차용되는 가족주의는 가족 구성원 간의 결속력과 애정, 정서적 교류를 중시하는 형태로 한국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 안에서 재현되고 있으며, 한국적 집단주의라 일컬어지는 우리성은 한국의 관계주의 문화 속에서 ‘나’라는 개인보다 ‘우리’라는 집단이 더 큰 힘을 받

휘한다는 믿음을 대변하며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이러한 가치관을 사회 안에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논의의 가치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전통적 관점의 번역학에서는 활발히 다루어지지 않은 ‘각색’이라는 주제 분야를 내러티브 번역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하였다. 이는 번역 연구의 외연을 넓히는 동시에 번역 개념에 대한 확장적 관점을 번역 논의에 접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원문과 번역문을 비교하는 텍스트 차원의 분석을 넘어 텍스트가 생산된 배경, 그리고 이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차원의 영향 요인을 다각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연구 방법의 다변화를 꾀하고, 이를 통해 거시적 관점의 함의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보다 심층적인 논의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본 연구의 분석 내용은 도착문화권인 한국 사회의 텍스트 생산적 측면, 사회문화적 특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문화 간 중개로서의 번역 양상을 보다 균형 있게 조명하기 위해서는 출발문화권인 영미문화권의 텍스트 생산 및 사회문화적 특징도 후속 연구의 탐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고에서는 텍스트의 내용적 요소인 내러티브의 번역 양상만을 고찰했다. 향후 각색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번역에 수반되는 언어 및 비언어기호의 변이로 탐구 영역을 넓힌다면 매체 간 번역에 대한 보다 풍성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김기덕, 이동배, 장제윤 (2012) 「한류 드라마에 나타난 가족주의: 현대 중국인의 시각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연구』 2: 7-29.
 김혜영 (2013)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 『젠더와 문화』 6(1): 7-41.
 박건영 (2020) 시각 이미지의 메타기능 분석—<리틀 드러머 걸(The Little Drummer Girl)>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1(2): 67-93.
 박인철 (2012) 설화 도식 재론, 『기호학 연구』 31(0): 141-179.
 박재홍 (2007) 『논어 품질경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백광렬, 이상직, 사사노 미사에 (2018) 한국의 가족주의와 가족 관념, 『한국 사회학』 52(4): 115-159.
 선영화 (2016) 「그림책에서 애니메이션으로의 시각기호 번역 연구: *The Lost Thing* 각색의 스키포스를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8(1): 77-102.
 선영화 (2019) 『트랜스크리에이션 시대로의 창조적 전환을 준비하며: 개념 연구 및 국내 LSP 업체 인터뷰를 통한 이론·실무·교육 차원의 고찰을 중심으로』, 한국의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손영은 (2010) 「영화 <엽기적인 그녀>의 엽기성에 관한 시각 차이와 요구하기의 문제」, 『영화와문학치료』 4: 163-192.
 신중곤 (2013) 「영화 [은교]의 각색 연구 - 소설 『은교』를 원천이야기로 삼은 영화 [은교]의 변형적 각색 방식을 중심으로 -」, 『어문논집』 68: 233-260.
 양정은 (2019) 한국인의 문화 심리적 특성이 문제대응방식, 스트레스,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5): 1-14.
 이명호 (2013) 가족 관련 분석적 개념의 재구성: 가족주의에서 가족중심주의로, 『사회사상과문화』 28: 359-393.
 조은진, 전형연 (2019) 시나리오 창작을 위한 내러티브 생성 기본 모형 제안, 『인문콘텐츠』 52: 191-222.
 조효 (2013)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영화 각색의 문화경제학, 『대한토목학회지』 63(4): 76-79.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최상진, 최인재 (2002) 한국인의 문화 심리적 특성이 문제대응방식, 스트레스,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55-71.
 최진실 (2019) 「각색과 번역의 수용: 영화 <엽기적인 그녀>의 할리우드 리메이크작 <마이세시걸(My Sassy Girl)>의 관객 수용적 관점에서」, 『통번역교육연구』 17(4): 209-231.
 Asimakoulas, Dimitris (2016) ‘Aristophanes in Comic Books: Adaptation as Metabase’, *Meta* 613: 553-577.
 Bassnett, Susan (2002) *Translation Studi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Cattrysse, Patrick (2019) ‘Adaptation Studies, Translation Studies, and

- Interdisciplinarity. Reflections on Siblings and Family Resemblance', *Adaptation* 12(3): 206-221.
- Enríquez-Aranda, Mercedes and Jiménez-Carra, Nieves (2015) 'Training Translators through the Use of Audiovisual Ads: Didactic Exploitation and Cultural Implications', *Babel* 61(3): 411-432.
- Krebs, Katja (2014) *Translation and Adaptation in Theatre and Film*, London & New York: Routledge.
- Mandal, Somdatta (2012) 'Two Masters One Text: Satyajit Ray's Transcreation of *Ghare Baire*', in Mohd Asaduddin and Anuradha Ghosh (eds) *Filming Fiction: Tagore, Premchand, and Ray*, New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1-12.
- Minier, Márta (2014) 'Definitions, Dyads, Triads and Other Points of Connection in Translation and Adaptation Discourse', in Katja Krebs (ed.) *Translation and Adaptation in Theatre and Film*, London & New York: Routledge, 13-35.
- Nida, Eugene (2012) 'Principles of Correspondence', in Lawrence Venuti (ed.)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London & New York: Routledge, 141-155.
- O'Connor, Barbara (2009) *How to Steal a Dog*, New York: Farrar, Straus & Giroux.
- Palumbo, Giuseppe (2009) *Key Terms in Translation Studies*, London & New York: Continuum.
- Perdikaki, Katerina (2017) 'Film Adaptation as an Act of Communication: Adopting a Translation-oriented Approach to the Analysis of Adaptation Shifts', *Meta* 62(1): 3-18.
- Sanders, Julie (2006) *Adaptation and Appropriation*, London: Routledge.

<인터넷 자료>

- 김성호 (2015) 러프컷 #1 - 김성호 감독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vemeo』, 2021년 8월 20일 검색.

- 데일리한국 (2017. 11. 21) '꾼', 올 겨울 사로잡을 '케이퍼 무비'의 정석, 『데일리한국』, 2021년 10월 8일 검색.
- 문화체육관광부 (2014. 1. 28) 「2013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 보고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년 5월 20일 검색.
- 배경민 (2014) 집으로(집으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1년 8월 25일 검색.
- 양미영 (2012. 2. 7) '볼츠와 블립' 2월 23일 개봉... '마당을 나온 암탉' 흥행 이끌까?, 『독서신문』, 2021년 7월 24일 검색.
- 파이낸셜뉴스 (2015. 2. 16) [VPR]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관객의 힘으로 사실상 재개봉!, 『파이낸셜뉴스』, 2021년 8월 5일 검색.
- 현화영 (2014. 11. 4) 「김혜자·최민수·강혜정·이레 주연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12월 개봉」, 『세계일보』, 2021년 7월 21일 검색.

[Abstract]

From Novel to Film: A Socio-Cultural Perspective

Sun, Young-hwa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translation of narrative’ in the film adaptation of *How to Steal a Dog*. The researcher uses a 3-step analysis to delve deeply into factors surrounding adaptation. First, text analysis is conducted to analyze how the narrative of the novel is different from the adapted one. For this purpose, Greimas’s model of ‘schéma narratif’ is adopted. Secondly, the production of the target text is identified based on paratexts including the marketing concept, the positioning map and character introductions. Finally, socio-cultural factors that can potentially affect the production of the film are explored. Findings show three implications as follows: (1) film adaptation transformed the source text as a growth novel into a family movie; (2) marketability and acceptability wer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e process of adaptation; (3) this decision making surrounding film adaptation can be affected by socio-cultural factors such as ‘familism’ and ‘we-ness.’

- ▶ Key Words: adaptation, narrative, schéma narratif, familism, we-ness
- ▶ 주제어: 각색, 내러티브, 내러티브 도식, 가족주의, 우리성

선영화
한국외국어대학교 EICC학과 시간강사
sunyh12@naver.com

관심분야: 트랜스크리에이션, 각색, 영상번역, 번역교육

논문투고일: 2021년 9월 5일

심사완료일: 2021년 9월 28일

게재확정일: 2021년 10월 7일